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 공관복음서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를 통해서

11월 28일 강의 계획서

대사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심

4. 배반자 유다의 종말(성 금요일 새벽)

새벽이 되자 산헤드린은 다시금 모여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바꾸는 결의를 한 다음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려 하였다. 그때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 은돈 서른 닢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나? 그것은 네 일이다.” 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마태 27,1-10)

(1) 유다가 심경을 바꾼 이유

(2) 유다 생의 마지막 모습

① 뉘우치며 은전 30냥을 돌려주려 함

②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의 의미

③ 스스로에게 율법 규정을 적용해서 유다가 자살해 버림

(3) 유다가 생각한 정의: 구약에 머무는 정의

(4) 유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루카 23,34)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으심

0.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의 시간별 보도

성금요일 오전 6시 “아침이 되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마르 15,1)

성금요일 오전 9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마르 15,25)

성금요일 정오 “낮 열두 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시까지 계속되었다”(마르 15,33)

성금요일 오후 3시 “오후 세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라니?’ 하고 부르짖으셨다.”(마르 15,34)

성금요일 오후 6시 “이미 저녁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마르 15,42)

1. 빌라도의 법정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하고 묻자, 그분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마르 15,1-2)

- (1) 빌라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기원후 26-36년)
- (2) 빌라도의 첫 질문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 (3) 빌라도는 재판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무죄를 어떻게 알았는가?

2. 빌라도의 초상

- (1) 비극적 인물 빌라도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요한 19,11)

- (2) 그가 예수님을 ‘거의’ 풀어줄 뻔한 이유들

"그러자 군중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그들의 소리는 갈수록 거세어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루카 23,23-24).

- (3) 빌라도가 경청해야 했던 또 다른 세 종류의 목소리들

- ① 예수님의 침묵의 목소리

- ②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Claudia Procula)의 목소리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요.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어요"(마태 27,19).

- ③ 자기 양심의 목소리

- (4) 사실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십자가의 길(성금요일 오전)

1. 채찍질과 수모를 당하심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매질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넘겨주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인 궁전 뜰 안으로 끌고 가서 전 부대를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그분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얹어서 씌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왕, 만세" 하며 짐짓 인사를 했다 또한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고 칩을 뺄으며 무릎을 꿇어 절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분을 조롱하고 나서 자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걸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 데리고 나갔다 (마르 15,15-20).

- (1) 십자가에서 처형될 사형수를 위한 첫 번째 집행은 매질하는 것
- (2)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셨을까?

2. 예수님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몇 가지 정보들

- (1) 당시 십자가의 세 가지 유형
 - crux immissa*(전통적인 십자가)
 - crux commissa*(일명 타우 십자가)
 - crux decussata*(일명 안드레아 사도의 십자가)
- (2) 십자가 사형이 극형인 이유
- (3) 십자가는 언제부터 기도와 예술의 중심이 되었을까?

3. 키레네 사람 시므온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강요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와 루포의 아버지인데 들에서 오는 길이었다.(마르 15,21)

- (1) 키레네의 위치
- (2) 시므온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 수 있었던 로마법
- (3) 시므온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갖게 된 은혜들

"안티오키아에 있는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르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키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로데 영주와 함께 자라난 마나엔과 사울이었다"(사도 13,1).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므온"(마르 15,21)

4. 골고타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 터’라는 뜻이다. ...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 그분의 죄명 패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마르 15,23-27)

(1) 골고타

(2) 예수님의 죄목

마태 27,3 (“이자는 예수, 유대인들의 임금이다”)

마르 15,26 (“유대인들의 임금”)

루카 23,38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

요한 19,19 (“나자렛 사람 예수, 유대인들의 임금”)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요한 19,19-20)

십자가상의 예수님(성금요일 오전과 낮)

1. 십자가상의 칠언(架上七言)

(1)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사실 그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옵니다."

① "사실 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옵니다."의 의미?

② 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③ 스승 예수님처럼 박해자를 용서하고 치명 당하신 순교자들

④ 우리가 순교하지 않는다 해도 용서하며 죽음을 맞이해야

(2)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하거니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 달려 있던 범죄자들 가운데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여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자신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보려무나’ 하였다. 그러나 다른 범죄자가 되받아 그를 나무라며 ‘같은 심판을 받는 주께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우리가 한 짓에 마땅한 벌을 당연히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그릇된 일을 하지 않았다’ 하였다. 그러고는 “예수님, 당신 나라로 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하거니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루카 23,33.39-43)

- ①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매달려 있던 사형수들은 두 명이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 가운데에 있었을까?
- ② 우도(右盜)가 한 말들
 -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 “우리야 우리가 한 짓에 마땅한 벌을 당연히 받고 있지만”
 - “이분은 아무것도 그릇된 일을 하지 않았다.”
 - “예수님, 당신 나라로 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 ③ 예수님이 우도에게 하신 말씀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하거니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 ④ 은총이란 무엇인가?
- ⑤ 구원이란 무엇인가?

- (3) “여인이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때 할 것임]
- (4) “목마르다” [요한복음 강의 때 할 것임]
- (5)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그리고 열두 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세시까지 계속 되었다. 세시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 ① 정오에 시작되어 세 시까지 계속된 어둠
- ② 하느님으로부터 단절되면서 나온 울부짖음
- ③ 성부 하느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 ④ 하느님의 상처와 예수님의 상처 앞에서 우리가 울다

(6) “다 이뤄졌다” [요한복음 강의 때 할 것임]

(7)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5)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묻히심(성금요일 오후)

1. 예수님의 운명하심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마르 15,37-38).

(1) 질식사로 돌아가셨는가? 심부전으로 돌아가셨는가?

(2) 지성소 휘장이 찢어짐

(3) 하느님은 왜 지성소의 휘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찢어놓으셨을까?

2. 무덤에 묻히심

어느덧 저녁때가 되었고, 그 날은 준비하는 날,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왔는데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그 역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감히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니 빌라도는 그분이 벌써 돌아가셨는지 놀랍게 여기고, 백인대장을 불러 그분이 어느새 돌아가셨는지 물었다.

이렇게 백인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체를 요셉에게 내주었다. 그리하여

요셉은 삼베를 사 가지고 가서 그분 시신을 내려다가 삼베로 싼 다음,

바위에 뚫린 무덤에 안장하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러 놓았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그분이 어디에 안장되는지

바라보고 있었다.(마르 15,43-47)

(1)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

(2) 유대인들의 매장 풍습

(3) 만약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 무덤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4)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 제자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내시면서 숨지셨다....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계셨을 때에 그분을 따르면서 시중을 들었었다. 또한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마르 15,37.40-41).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그분이 어디에
안장되는지 바라보고 있었다.(마르 15,42-47)

예수님 수난사건에 대한 정리

1.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갖는 의미

- 하느님 편에서 갖는 의미
- 예수님 편에서 갖는 의미
- 신자들 편에서 갖는 의미

2. 교회가 예수님 수난을 파시오(*passio*)라 부르는 이유

3.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서 오는가, 또는 그분의 사랑에서 오는가?

- (1) 오강남 교수의 주장 → 아벨라르의 주장
- (2) 안셀무스 성인의 주장